

농업계 특수목적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aptation of Student at Agricultural Special Purpose Academies

안진선

J. S. An
국립한국농수산대학¹
교학과

이민수 *

M. S. Lee
국립한국농수산대학¹
교양공통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aptation of student at agricultural special purpose academies. The participants were 335 college students in H city from November 2 to December 12 in 2016.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was analyzed using SPSS 23.0.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aptation of college student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College Adaptation was 42.0%.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 foundation to recognize importance of College Adaptation an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College Adaption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 at agricultural special purpose academies.

Key words : College adaptation, Career identity, Special purpose academies

*교신저자: minsoo.lee@gmail.com

¹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1. 서론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업·농촌의 인력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하였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업 분야도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농업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한 기계화,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환경의식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 임박했던 1990년대 초부터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구조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허용준, 2013).

앞으로의 농업전망이 희망적이지 못한 가운데,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육성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며 재촌 인력에 대한 역량 증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기존의 농업인조직 육성을 통한 인력개발 방안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거론할 수 있는 시점이다(김진군 외 2인, 2008).

그러나 인력양성에 필요한 국내 상황에서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할 농업관련 대학이 전무하고,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영농 취업률도 극히 저조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교의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1994년 5월에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할 순수한 농업대학의 설립을 건의하였고, 1994년 6월에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농수산 전문기술대학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1994년 9월에 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5년 7월 27일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14742호)이 공포되어 1997년 3

월 20일 국립 3년제 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06년 9월 27일 한국농업대학 설치법(법률 제7997호)이 공포되어 명칭을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4월 1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법률 제9624호)이 공포되고, 2009년 10월 2일 시행되어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 전 분야로 확대하여, 대학의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그 소속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였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농수산대학은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1차 산업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기에 일반대학교와는 달리 여러 혜택과 의무가 공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혜택으로는 전학생의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학비 및 기숙사의 전액국비지원과 병역혜택지원이다. 의무로써는 6년 동안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중도 포기나 탈락 시 대학 생활 중 지원된 학비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 한국농수산대학은 3년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운영방식은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샌드위치 시스템(Sandwich Education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이론과 실습이 완벽하게 조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농업 CEO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 방식이다(김수옥, 2011).

특수목적대학 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 진로가 거의 결정된다. 학교 특성상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면서 학습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일반대 학생보다 사회적 관계가 협소한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또한 2학년 시기에 학교를 벗어나 국내외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도 한국농수산대학의 특징이며, 졸업과 동시에 농촌 현장에서 영농 수행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농수산대 학생의 학교적응과 직업선택 및 취업에 대한 생각은 일반대 학생들과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학생활은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에 처음으로 자신의 일상 행동에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Stanzione, 2005). 대학생활의 목적이 지적 기능의 발달이나 기술 습득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되고 적응하는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들에게 학업, 대인관계 등 다면적인 분야에서의 경험을 의미한다(조화진, 2004; Baker & Siryk, 1989). 대학생활 적응을 통해 대학생은 흥미와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동시에,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장, 단점을 발견하고, 내재화, 사회화 되어진 자신을 새롭고 낯선 대학환경에 통합시켜 나간다(Gerdes & Mallinckrodt, 1994).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에서 뿐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inkle, 2005).

한국농수산대학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국가의 식량 안보 확보 및 농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은 향후 농촌 현장의 CEO로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현재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이 진로에 대한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며, 이러한 특징은 문제없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고, 피할 수 없는 모호함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관련이 깊다(Holland, Gottfrend, Power, 1980). 즉, 진로정체감은 학생들이 농촌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불확실한 문제해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농촌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농업경영, 대인관계 등 많은 것을 학습하는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의 대학구조는 학과

나 전공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공은 장래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정보연, 2010).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뿐만 아닌 대학졸업 이후의 직업적 성공에도 영향을 준다(Hinkle, 2005).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대 학생들이나 특수목적 대학생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정체감에 관련된 개인 환경요인, 가족 환경요인, 대학 환경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 환경요인은 성별, 학년, 연령, 재수경험 등이다. 가족 환경요인은 부모학력, 가족원 구성 수, 월수입 등이며, 대학 환경요인으로는 학업중단 여부, 전공적응 등 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계 특수목적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계 특수목적대학 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재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을 규명한다. 셋째, 재학생의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는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이다. 재학생 중 1년 동안 전원 국

내외 현장실습을 하는 2학년을 제외한 1학년과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에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주간에 걸쳐 수업시작 전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350명이 응답하였고 누락응답, 일련번호 기입 등 불성실 응답본 15개의 조사표를 제외한 335개의 조사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 도구

가. 대학생활 적응(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하고 현진원(1992)이 보완한 SACQ(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SACQ는 총 67문항으로 자기보고식 Likert 5점 척도이다. 이들 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척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에서 요구되는 교육적·학업적 적응을 묻는 학업적응 24문항, 대인관계와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응 20문항, 심리적·신체적 불편감을 묻는 개인-정서적응 16문항, 대학에 대한 유대 정도와 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대학환경적응 16문항이다. 이들 하위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 적응 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0.95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학업적응 0.875, 사회적응 0.875, 개인-정서적응 0.874, 대학환경적응 0.846으로 모든 하위요인들이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나. 진로정체감(My Vocational Situation)

참여자들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하고 김봉환(1997)이 번안한 MVS(My Vocational Situ-

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자기보고식 4점 Likert척도이다.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은 자신의 이해(7문항), 직업정보의 이해(5문항), 능력 자신감(5문항), 자기평가(1문항)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진로정체감 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93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자신의 이해 0.843, 직업정보의 이해 0.833, 능력 자신감 0.847로 나타났다.

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3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재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적응 요인과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72.8%, 여학생이 27.2%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76.1%, 3학년이 23.9%로 1학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만20~24세가 87.8%로 가장 높았으며, 만 25~29세가 10.1%로 두 번째로 높았다. 군복무경험에서는 미필이 79.1%, 군필이 20.9%로 미필 비율이 더 높았다. 종교 활동 여부에서는

Table 1. Participa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Group

특성	구분	N	%
성별	남학생	244	72.8
	여학생	91	27.2
학년별	1학년	255	76.1
	3학년	80	23.9
연령별	만 20~24세	294	87.8
	만 25~29세	34	10.1
	만 30세 이상	7	2.1
군복무경험	미필	265	79.1
	군필	70	20.9
종교 활동 여부	한다	104	31.0
	안 한다	231	69.0

한다가 31.0%, 안 한다가 69.0%로 안 한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응생활 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평균 차이 검정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대학생활 적응 4가지 하위차원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의 경우는 1% 수준에서, 사회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대학생활 적응 4가지 하위차원 중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서는 3학년이 1학년보다 점수가 다소 높았으며, 개인-정서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서는 1학년이 3학년보다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대학생활 적응 4가지 하위차

원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모두에서 2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20-24세 연령층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그리고 대학환경적응 등 모든 하위차원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대학생활 적응 4가지 하위차원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 모두에서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그리고 대학환경 적응 등 모든 하위차원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 유무에 따라서는 대학생활 적응 4가지 하위차원 중 학업적응의 경우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집단의 점수가 다소 높았으며, 나머지 3개 하위차원은 미활동 집단이 종교 활동 집단보다 점수가 다소 높았다. 그러나 이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일수록, 저연령층 보다는 고연령층일수록, 군복무 경험이 있을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2. Mean Differences at SACQ Scales by Group

특성	하위변인 구분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	3.40 (.59)	3.459***	3.59 (.61)	2.610**	3.47 (.61)	4.337***	3.69 (.68)	2.500**
	여	3.17 (.40)		3.40 (.45)		3.13 (.53)		3.49 (.51)	
학년별	1학년	3.31 (.52)	1.502	3.53 (.55)	-.195	3.39 (.62)	.344	3.64 (.61)	.029
	3학년	3.42 (.64)		3.55 (.66)		3.33 (.68)		3.61 (.73)	
연령별	20~24세	3.28 (.51)	-5.129***	3.48 (.51)	-4.692***	3.31 (.61)	-5.471***	3.57 (.60)	-4.988***
	25세 이상	3.75 (.67)		3.92 (.66)		3.87 (.63)		4.09 (.73)	
군복무 경험	있음	3.77 (.67)	7.849***	3.94 (.65)	7.120***	3.86 (.63)	7.618***	4.07 (.69)	6.684***
	없음	3.22 (.45)		3.43 (.50)		3.25 (.58)		3.52 (.67)	
종교 활동	한다	3.38 (.54)	.955	3.53 (.58)	-.038	3.36 (.64)	-.333	3.63 (.66)	-.010
	안 한다	3.32 (.56)		3.54 (.58)		3.39 (.64)		3.64 (.63)	

* $p < .1$, ** $p < .05$, *** $p < .01$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정체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평균 차이 검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정체감 3가지 하위차원인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그리고 능력 자신감 등 모든 하위차원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진로정체감 3가지 하위차원 모두에서 3학년의 점수가 1학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이해, 능력 자신감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의 이해 측면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라서는 진로정체감 3가지 하위차원인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 모두에서 2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20 - 24세의 저연령층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그리고 능력 자신감 등 모든 하위차원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진로정체감 3가지 하위차원인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 모두에서 군복무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그리고 능력 자신감 등 모든 하위차원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 유무에 따라서는 진로정체감 3가지 하위차원 모두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집단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이해, 능력 자신감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이해 측면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일수록, 저연령층 보다는 고연령층일수록, 군복무 경험이 있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Mean Differences at MVS Scales by Group

특성	하위변인 구분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	2.70 (.66)	3.844***	3.02 (.68)	3.448***	2.94 (.70)	4.318***
	여	2.41 (.56)		2.74 (.61)		2.58 (.63)	
학년별	1학년	2.59 (.62)	-1.558	2.90 (.65)	-1.722*	2.80 (.66)	-1.500
	3학년	2.72 (.74)		3.05 (.73)		2.94 (.67)	
연령별	20~24세	2.56 (.64)	-4.826***	2.86 (.65)	-5.380***	2.76 (.64)	-5.615***
	25세 이상	3.07 (.59)		3.45 (.58)		3.39 (.69)	
군복무 경험	있음	2.98 (.63)	5.370***	3.40 (.57)	6.625***	3.31 (.64)	6.663***
	없음	2.52 (.63)		2.82 (.65)		2.72 (.66)	
종교 활동	한다	2.53 (.61)	-1.705*	2.91 (.65)	-.494	2.84 (.64)	-.046
	안 한다	2.67 (.67)		2.95 (.69)		2.84 (.73)	

* $p < .1$, ** $p < .05$, *** $p < .01$

1=전혀 그렇지 않다 ~ 5=아주 그렇다

4.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진로정체감의 관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농업계 특수전문대학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x1), 연령(x2), 군복무경험(x4)은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정

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년(x3)과 종교생활(x5)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는 부적 관계($r = -0.234 \sim -0.138$)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과도 부적 관계($r = -0.232 \sim -0.187$)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

과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일수록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고, 진로정체감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는 정적 관계($r=0.187 \sim 0.21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과도 정적 관계($r=0.192 \sim 0.27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고, 진로정체감도 높

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복무 경험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는 부적 관계($r=-0.402 \sim -0.349$)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과도 부적 관계($r=-0.345 \sim -0.283$)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군복무 경험이 있을수록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고, 진로정체감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ACQ, and MVS Sca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											
X2	-.075										
X3	.067	.331***									
X4	.314***	-.485***	-.212***								
X5	.062	-.104*	-.033	.084							
X6	-.190***	.187***	.084	-.402***	-.053						
X7	-.144***	.187***	.011	-.369***	.002	.814***					
X8	-.234***	.192***	-.038	-.389***	.018	.789***	.766***				
X9	-.138**	.211***	-.017	-.349***	.001	.808***	.887***	.763***			
X10	-.206***	.192***	.085	-.283***	.093*	.461***	.409***	.517***	.484***		
X11	-.187***	.257***	.095*	-.344***	.027	.535***	.563***	.570***	.599***	.720***	
X12	-.232***	.271***	.082	-.345***	-.003	.521***	.503***	.529***	.568***	.740***	.836***

성별:X1(남자=1, 여자=2), 연령:X2, 학년:X3, 군복무경험:X4(경험층=1, 미경험층=2), 종교생활:X5(1=한다, 2=안 한다) 학업적응:X6, 사회적응:X7, 개인정서적응:X8, 대학환경적응:X9 자신의 이해:X10, 직업정보의 이해:X11, 능력 자신감:X12

* $p<.1$, ** $p<.05$, *** $p<.01$

5.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정체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들은 진로정체감

전체에 대해서 약 42.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들은 학업적응($p<.1$), 개인-정서적응($p<.01$), 대학환경적응($p<.01$)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정서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환경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정체감 하위차원의 하나인 '자신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들은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 약 30.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이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들은 사회적응, ($p<.05$), 개인-정서적응($p<.01$), 대학환경적응($p<.01$)으로 나타났다. 사업적응 정도가 낮을수록, 개인-정서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환경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정체감 하위차원의 하나인 '직업정보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들은 '직업정보의 이해'에 대해서 약 39.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의 이해'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들은 개인-정서적응($p<.01$), 대학환경적응($p<.01$)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환경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직업정보의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정체감 하위차원의 하나인 '능력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들은 '능력 자신감'에 대해서 약 3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들은 개인-정서적응($p<.01$), 대학환경적응($p<.01$)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환경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능력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ummary

종속변수	독립변수	adj R ²	F	B	β	t
진로정체감 전체	학업적응	.420	53.648***	.173	.158	1.800*
	사회적응			-.131	-.124	-1.180
	개인-정서적응			.349	.365	4.632***
	대학환경적응			.277	.295	2.771***
자신의 이해	학업적응	.302	33.378***	.158	.136	1.435
	사회적응			-.315	-.283	-2.475**
	개인-정서적응			.411	.404	4.720***
	대학환경 적응			.309	.310	2.701***
직업정보의 이해	학업적응	.392	48.408***	.072	.060	.671
	사회적응			.103	.089	.829
	개인-정서적응			.329	.313	3.898***
	대학환경 적응			.226	.219	2.018**
능력 자신감	학업적응	.315	39.195***	.178	.143	1.569
	사회적응			-.159	-.133	-1.210
	개인-정서적응			.325	.298	3.634***
	대학환경 적응			.359	.335	3.045***

* $p<.1$, ** $p<.05$, *** $p<.01$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계 특수목적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 정도를 조사하여 평균 차이 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학생의 개인특성과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계 특수목적대학 재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대응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일수록,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일수록, 군복무 경험이 있을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학생보다 남학생일수록,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일수록, 군복무 경험이 있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농업계 특수목적대학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도 평균차이 검정과 동일하였다.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군복무 경험이 있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진로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들은 진로정체감 전체에 대해서 약 42.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는 30.2%, '직업정보의 이해'에 대해서는 39.2%, '능력 자신감'에 대해서는 약 31.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정서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환경적응 정도가 높을

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이 큰 대학생활 적응 하위차원은 개인-정서적응과 대학환경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업계 특수목적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학과 달리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학생의 경우 승계농이 아닌 도시 출신인 경우가 많아 졸업 후 농촌지역으로 바로 진출하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농업과 연관된 분야로 진로 기회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이나 지역 농촌 활성화 사업단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연스럽게 농촌지역에 연착륙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연령층인 군필자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군대를 다녀온 고연령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정체감이 낮은 학생들의 멘토로 이들 고연령층 군필자를 활용하기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학교 차원에서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 미필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온 경우로, 이들은 타 대학과는 달리 엄격한 기숙사 생활과 한정된 대인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정규수업외에 학교 측이 마련한 성공한 졸업생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졸업생과의 만남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상황과 농업인으로서 자세를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들이 만든 자생적인 진로정보 탐색 동아리를 지원함으로

써 이들이 보다 특수목적대학의 일원으로 성장을 유도해야 하며, 농업 CEO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지도력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진로정체감을 높이고 부가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도울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업계 특수목적대학의 핵심 목표는 졸업생의 농업분야 진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이 필수 조건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는 대학생활 적응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활 적응 요인 중 개인-정서적응과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 상담실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실무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현장에서 맞닥치게 되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알게 해주어 올바른 판단과 당혹스러움을 줄임으로써 이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직업정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수목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목적대학 성격에 적합한 재학생 특성을 범주화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농업계 특수목적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수목적대학 재학생의 특성을 다양한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이들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특성이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단순한 평균차이 검정을 넘어서 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서 재학생 특성과 진로정체감의 관계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 참고문헌

1.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김진균, 강정현, 김인규. (2008). 농촌의 자원지도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 조직의 활력화 방안 연구: 농촌지도자회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Vol. 15-5.
3.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이관형, 장용규, 안현미. (2000). 교육대학 남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도 연구. 학생생활연구 Vol 26. 115-145.
5. 이시연. (2017). 대학생 자기대상육구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이찬숙, 이해경. (2014).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K전문대학교 신입생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연구, 20권 1호. 19-31.
7. 정보연. (201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8. 허용준. (2013). 한국농업의 영농 규모와 형태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Hinkle, S. E. (2005). Making the transition: *The adjustment experiences of first-year students attending a pre-college academic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Indiana-

- polis.
11.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39(6),1191-1200.
 12. Holland J. L., J. E: Holland.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 414.
 13.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2nd ed.). Englewood Cliffw. NJ ; prentice-Hall.
 14.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cGraw-Hi.
 15. Skorikov, V., & Vondracek, F. (1998).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Its relationship to other identity domains and to overall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1). 13-35.

논문접수일 : 2019년 4월 4일
논문수정일 : 2019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5월 20일